

여수시, ‘공감형 안전도시’ 실현 잔결음

시민 참여형 안전정책 추진
드론 활용 실시간 재난 대응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 도입

여수시가 시민 참여형 생활밀착 안전정책을 추진, 공감형 안전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와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 대응, 시민안전보험 운영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행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안전문화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전 시민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과 QR 기반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 어린이·어르신 맞춤형 안전학당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여수시민



여수시가 최근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여수시 제공〉

전체가 자동 가입되며,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에는 상반기 동안 시민과 관광객 1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진단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세

부 분야별로 나눠 참가자가 스스로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반기에는 이통장과 자생단체, 국가산단 종사자 등 핵심 실무 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안전학당’은 교통이나 화

재, 자연 재난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실생활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해양과 도서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드론 활용 재난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드론을 통해 재난 취약지역을 사전에 예찰하고, 재해 발생 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가



‘2025년 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가 최근 장성무궁화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무궁화 도시’ 자리매김

무궁화공원서 이틀간 2천여명
분묘 품평회·물놀이·버스킹도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린 ‘무궁화 장성대축제’에 2천여명이 방문하면서 무궁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지난 7~8일 이틀간 장성무궁화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전국 규모 행사로, 장성군을

비롯해 수원시·홍천군·완주군 등 4곳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무궁화공원 ▲장성공원 경관폭포 ▲주차장 부지 등 세 구역에서 진행됐다. 무궁화공원에서는 ‘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가 열려 다양한 품종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으며, 장성군은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300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묘목 나눔 행사’와 무궁화 소품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도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양식 양산과 생수도 비치해 무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을 배려했다.

경관폭포 인근에서는 워터슬라이드, 물총싸움 등 물놀이가 진행됐고 푸드트럭에서는 음료·아이스크림·간식 등을 판매해 즐길 거리를 더했다.

또 해가 진 후에는 투광등과 반디조명이 어우러진 경관폭포 야경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담양에서 온 한 관광객은 “무궁화가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교통도 편리하고 즐길거리도 많아 만족했다”고 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은 화차를 만든 망암 변이중 선생과 의병장 기삼연 선생을 배출한 충의와 애국의 고장”이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호국보훈 무궁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구례군, 신규농 양봉 기술 교육생 모집

내달 5일까지 방문·메일 접수

구례군은 11일 “다음달 5일까지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양봉기술 양봉반 기초기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봉에 관심 있는 신규 농업인과 청년농,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이론과 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

뤄진다.

특히 영농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부터 실무까지 단계별·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은 다음달 10일부터 10월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례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귀농귀촌팀(061-780-8086)에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양봉 기술 교육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순천시, 폭염 취약계층에 냉방비 50만원 지원

시설·단체 7곳 2개월간

냉방기 설치비 100만원도

순천시가 연일 계속 되는 폭염 속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점검 강화와 시설 지원 확대에 나섰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단체 7곳에 긴급 냉방비를 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고 냉방기기 설치를 위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55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냉방기기가 동상대, 안전관리 실태, 폭염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한 장애인 단체장은 “폭염이 길어져 냉방비가 걱정됐는데 지원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며 “사무실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특히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담양군,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30만원

담양군은 11일 “이달부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어야 한다. 조부모의 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이를 통해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곡성군, 호우 피해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피해 면적 1ha당 10만원

곡성군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한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옥과권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고 벼 생육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출수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작물 침수 피해 정밀조사 후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필지이며 피해 면적 1ha당 10만원의 방제비가 지급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호우는 4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컸다”며 “침수 피해 벼의 품질 저하를 막고 고품질 쌀을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곡성군 벼 예찰 결과 일부 필지에서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이 발생해 방제가 권장되고 있다. 다만, 흑머나방과 벼멸구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흥군 ‘제9기 여성리더대학’ 30명 수료

지역여성리더 역량강화

AI 맞춤 스피치교육도

장흥군은 11일 “장흥군보훈회관에서 제9기 여성리더대학 종강식을 열고, 30여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여성리더대학은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달 15일부터 총 6회 운영됐다. 올해 과정은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스피치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강의는 개강식에서도 특강을 진행했던 양국진 양국진스피치 대표가 맡아 스피치 마무리 교육과 함께 수료생들의 리더십 여정을 응

원했다.

양 대표는 “말은 리더의 힘이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여성리더대학은 스피치 기초, 보이스트레이닝, AI 활용 스피치, 회의 진행 스피치, 실용 스피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실무 역량과 리더십 자질을 강화했다.

장흥군은 2017년부터 여성리더대학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기수까지 총 34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여성리더대학 참가자들은 지역 행사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